東大新聞

發行人 金東益
編輯人 南都泳
主幹 宋赫
編輯部長 李星輪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3131~5
本社直通 ㉳8498
每週月曜日發行

今週一言

凡用必豫慮,
勿以損所務,
如是意日修,
事務不失時。

어떤것이 자기의 해야 할일인가 미리생각하고 꼬하고 헤아려, 마음을다하고일써 닦아서 그 할일의 때를 놓치지 말라.

<法句經>

新入生合格者발표

競爭率 4對1

3月8日 入學式

最高得點 韓始燕양 (師範大家政科)

◎… 새 東國人을 뽑는 1972학년도 남녀신입생 총1천1백20명 모집정원에 4천5백24명이 지원, 평균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이번 입학시험은 16일의 필기고사, 18일 면접일에 이어 17일 각각실시되었다.

◎…입학시험이 지난 17·18양일간에 걸쳐 실시, 총39개 학과중 최고경쟁을 나타낸 학과는 예비고사와 無關한 문리대 연극영화과의 19대1(20명정원)에 이어, 사범대體育敎育科의13대1(30명정원·3백91명지원) 순이다.

◎…25일 그 합격자 1천1백20명이 발표되었다.

◎…4대1의 높은 경쟁율을보인 이번 입학시험에서 영예의 全校수석합격은 師範大 家政敎育科(신설)를 지망한 韓始燕 (이화女高출신) 양이 차지했는데 5백점만점에 4백14점을 얻었다.

◎…

◇喜悲가 엇갈리는 합격자 발표장의 모습.

대학별로는 경상대가 6·1대1로 최고 경쟁율을보였다.

새東國人1천1백20명을 맞아들이는 입학식은 오는3월8일 오전10시 중강당에서 거행되며 전반적인 대학생활을 소개하는「오리엔테이숀」이 곧이어 11일까지 3일간 各단과대학별로 실시된다.

◇각단과대학별 경쟁율과 수석합격자는 다음과같다.
▲金校總首席=韓始燕(師範大·1대1)=金知榮(경제학·1대1)=廉相燮(농학과·大田高)▲裵林大(3·7대1)=林興煥(불교과·3·9대1)=林興煥(불교과·서울高)▲文理大(3·6대1)=姜昌鎬(영문과·東大附高)▲法政大(5·5대1)=金映辰(경찰행정학과·麗北高)▲經商大(6·1대1)=金知榮(경제학·大原高)▲農林大(3·7대1)=廉相燮(농학과·大田高)▲工科大(2·5대1)=金斗煥(식물학과·韓문고)▲師範大(5대1)=韓始燕(가정교육과·梨花女高)

登錄金 15%인상

登錄 3월4일까지

72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액이 밝혀졌다. 문교부의 私立大學 등록금규제 철폐에따라 처음으로 학교당국이 책정한 이번 등록금은 재학생의 경우 예년보다 평균15%가 오른7~8만원씩이 되고있다. 이에따라 경리과에서는 지난 24일부터 3월 4일까지를 등록기간으로 정하고 등록절차등에 만전을 기하고있다.

이번등록금의 최고액은고대 2학년의 8만천7백원이고, 최저는 佛敎大4학년의 6만8천3백원이다. 한편 등록기간 발표와함께 교무과에서도 오는 2일부터4일까지로 수강신청기간을 설정했다.

趙演鉉교수 3·1文化賞수상

문리대 趙演鉉(국문과) 교수가 제13회 3·1문화상 4개부문중 예술부문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이文化賞은 재단법인 3·1문화재단「이사장 李麟林」이 每年 학술부문, 예술부문, 기술부문의 4개분야에서 다대한 공적을 남긴 공로자를 1명씩 선정시상해왔다.

趙교수는 개화기 문학에 있어 새로운 해석으로 신문학 초창기의 이혁한 새로운 공로로 예술부문을 맡게되었다.

「시상식은 오는 3월1일 있어 영예의 주인공은 호텔에서 열릴 것이다.

◇張元圭 名譽哲博

◇李龍澯 박사

◇吳德永 박사

安保研究所 설치

所長에 閔丙天 교수

안보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추진하고 한국적 이론정립을 위한 본교 「安保硏究所」가 2월초 신설승인되어 政大學院 閔丙天 교수가 初代 所長에 임명되었다.

국가가 당면한 시급한 안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의 안보가치 관을 확립시킬은 물론 국제적 교류로 한국의 안보상황을 이해시키는데 그 설치 목적을 두고있다.

또한 국방·군사분야뿐 만아니라 정치·외교분야에 대해 주로 연구하게될 이 연구소에서는 사업계획으로 안전보장논문들을 간행하며 춘추계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북수도서의 보관 관리도 하게된다.

李泰永박사귀국 독일서연구마치고

본교 문리대史學科 李泰永박사가 서독정부의 초청으로「뮐른」대학에서 2년차연찬회를 가졌다.

農魚村硏究部(部長=李長杓·農)는 한지재단 4-H농장에서 지난25일부터 27일까지 많은학생지도교수, 선배가 참석한가운데 제6회 연찬회를 가졌다.

農硏部연찬회

71학년도 졸업식이 28일 오전10시 대운동장에서 열리어 학위수여식, 관계인사 등의 축사로 진행된다.

蔡炳錫사장, 金東益총장 부형등 내외귀빈이 참석하는 이날졸업식은 동대부고 三藤依織수석으로 시작되어 학위수여식, 관계인사 영광의 박사학위수여자는 경제학박사 李龍澯(경상대 무역학과교수) 경영학박사 吳德永(경상대 경제학과교수) 博士, 張元圭(불교대 학과교수) 명예철학博士이며 수석졸업생인 崔文卿(경영학과) 외에 794명의 學士와 大學院卒 39명이 명예로운 학위를 수령한다.

28일 學位授與式 擧行

博士3·碩士39·學士7백95명 首席졸업자 崔文卿양등 표창

또한 전교 수석졸업자인 崔양이 理學長상을 받는데 이어 경천 연구생활을 마치고 지난14日 귀국했다. 李교수는66년9월 向獨,그 동안Nationalism의 Typology.(민족주의유형)와 독일의 現代史(비스마르크)를 연구했었다.

崔양은 지난25일부터 4-H 농장에서 많은학생지도교수, 학생회장등 22명이 각각 공로상을 받는다. 다음은 博士學位 수령자 연구논문및 약력과 저서

吳德永=경제학博士(경상大 경제과 교수)「영국中世 村落共同體에 관한 연구」

△약력=▲49年서울大 大學院卒 ▲51年동국대학교 경상大 교수 △著書=「경제사연구」「최신경제史」「서양경제史」

張元圭=(佛敎大교수·교무처장) 력력철학박사△약력▲37년 彩花專門卒▲40년日本東京駒澤大學佛敎科卒▲56년 본교교무처장 ▲62년 교양학부장 ▲65년 佛敎文化硏究所長▲68년 佛敎大學長및 도서관장▲70년 교무처장

△저서및 논문=佛敎學개론·中國佛敎史·印度佛敎史·조계종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고찰·보살十地悅의 전개의 고찰·本生經類의 先天倫理와 보살思想·淨土사상의 硏究

受賞者 명단 (괄호안은 出身高및學科)

△理事長賞(전교수석)=崔경영(경영과·단대수석)=△총장상(단대수석)·경기(연고졸)·△공로賞(졸업장)=金용택(佛大졸업·哲科)·△▲宋만연(印哲科·경기고졸)▲김학순(食工科·경기고졸)▲김동高卒)▲김학순(食工科·숙명女高卒)△공로賞(졸업장)=△▲김용택(佛大졸업·哲科)·△▲宋만연(印哲科·경기고졸)▲김학순(食工科·숙명女高卒

슬기로운 개척자

졸업식에 부쳐

社說

티 없는 소년기에서 청이 든 청년기에걸쳐 오랜 학창생활을 마치고 교문을 떠나 사회에 첫발을 딛는 젊은 학사들의가슴엔 벅찬 희망과 가지가지의 감회(感懷)가 잔겨 있으리라.

국민학교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16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면서 형설의 공을 오롯히 쌓은 보람있어 영광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졸업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표한다.

그동안 많은 괴로움과 무거운 물질적 부담을 무릅쓰고 오직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최고 학부까지 보내주신 부모님과 여러가지 어려운 대학 내외의 여건을 극복하며 진리탐구에의 길을 성실껏 인도해주신 스승과 보이지 않는 뒤안길에서 힘을 주고 채찍질해 주신 사회의 선배들에 대한 은혜와 고마움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졸업생들과 같이 복장하고 기구한 운명속에 태어난 사람들도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것 같다. 이들은 거의 1950년 6·25 동란이란 민족 비운의 고비를 전후한 소용돌이 속에서 태어나 쓰라린 피난길에서 어버이들의 품안과 등위에서 자라났다.

수복 환도후 초·중·고·대학의 교육을 받는 동안 「4·19 학생의거」「5·16군사혁명」「6·3사태」등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나 풍질적으로 과거에 유례없는 격변을 많이 겪으면서 자라났고 고비를 넘어 겨우 성년 복장 다단한 어려운 고비를 넘어 겨우 성년 자라났고, 교육을 받은 용사(勇士)들이다.

그런련데서 오늘 졸업장을 받는 졸업생들에게 더욱 동정이 가고, 투엿인가 안타깝고 아쉬운 감정이 용솟음치는 동시에, 한편 그들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의 영광을 찾이하게 됨을 기뻐하고 그들의 앞기인 인내와 굳센 투지와 용감한 행동을 찬양하는 바이다.

졸업후에는 더 깊고 높은 학문의 길을 닦기 위하여 대학원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병역을 마치기 위해서 군문에 입대하는 사람, 사회의 신인생으로서, 직장에 진출하는 사람, 또 가정에서 가사에 힘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출하는 방향은 각기 다르겠지만 나와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길은 하나로 귀결(歸結)된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어떠한 지식과 기술을 발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실천 할 것이가 문제의 핵심이란다.

대학 재학중에는 주로 형제와 스승과 지도자의 선배들이 모든것을 돌보아주고 지도하며 이끌어 주었지만, 이제 일단 사회에 나서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자기스스로 자기 힘으로 처리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한창 시절의 한생에 대해서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관대히 아무었지만 일단 졸업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 사회는 무척 쌀쌀하고 냉정한 눈초리로 대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의 책임이 있는것이요,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할 의무가 너무도 많이 가로 놓여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

졸업생 제군은 개인이나 국가가 막대한투자(投資)에 의해 배양(培養)한 인재(人材)인 까닭에 기대하는 바 크고, 국민의 지도와, 국가의 보배다.

이것을 명심 자각하는 동시에 그동안의 고난과 역경속에서 길고 닦은 인격과 지식과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불굴의 용기와 끈기있는 인내력으로 정면 도전(正面挑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행동의 자세가 필요하다.

학문의 이상, 교육의 이상이 시대 변천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간다. 옛날의 학문, 옛날의 교육에서는 취득 교육, 직업교육이 그것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격조와 논리적이고 조화적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가장 논리적이며 균형있는 조화성때문에 가장 啓示性을 잘 표출하는 것이다.

「플라톤」의 『國家』에서 말한 「플라톤」의 『航海』의 철학이 불멸성을 갖는것이며 「logos」와 「mythos」의 隆替로 빛나는 全人的人間의 모습을 발전하게 되는것이다. 현대의 정신분석학의 「잠재의식」(無意識)과 「표면의식」(意識)과의 대립에 관한 現存分析은 결코 새로운것이 아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나 「釋迦」에게서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막스·웨—버」는 모든 나라가 다 유교를 갖고 있었지만 「對位法」과 「和聲法」에 의한 음악을 갖고있던 나라는 西歐가 진 나라에서만 民主主義와 資本主義가 성장하였다. 대유법과 화성법에 의한 음악은 「藝術」과 「科學」의 발달을 뿐이었다고 말

야스퍼스의 實存思想과 現代

—야스퍼스의 3周忌에 즈음하여—

야스퍼스 (1883, 2, 23~1969 2, 26)는 처음 精神病理학자로써 실존철학자가 되기까지 그누구보다도 思想的으로 轉換이 많았다。그는 독일 올덴부르크에서 태어나서 復活節고등학교 文科에서 희랍어와 나전어를 배웠다。그는 법학을 공부하다가 <警讀學>(Grophologie unterricht)에 감동되어 醫學을 공부하게 되었다。그후 1908年 넛슬교수지도로 <鄕愁病과 犯罪>에 관한 논문을 내어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허지만 그는 醫學者로서 머무르지 않고 1911年 「世界觀의 心理學」(Psychologieder Weltanschauung)에서 「生의 哲學」을 보였다。이「세계관의 심리학」은 정신병리학자인 그가 철학자로서 전환할 수있는 기반이 되었던것이다。

□生의 哲學者 야스퍼스는 86才를 일기로 출생 일보다 3일늦은 1969년 2월 26일 서거했다。

그는 결국 1922年 당대 최대의 철학자인 리케르트 (Rickert Heinich 1863—1936)에의하여 하이델베르트의 철학과의 正敎授의 자리에 앉게되었다。

그러나 비록 리케르트가 정신병리학자인 그를 포용성있게 받아들이는 했으나 사상적 대립은 면할수가 없었다。

리케르트가 본 야스퍼스는 하나의 정신병리학을 연구하는「생의 철학자」에 불과하며 순수철학자는 아니다。

반대로 야스퍼스가 본 리케르트는 리케르트가 말하는「논리주의적 가치철학체계는, 현실을 외면한뿐만 아니라 形式的自己拘束의 典型」이다。한편 야스퍼스의「生의철학」은 독일국민의 내적요구에 응한것 같기도하다。왜냐하면, 독일은 세계제2차대전을 겪은 후라 경제적 곤궁과 사회적 혼란으로 절망과 불안으로써 국민은 참나적 享樂에로만 향해 갈때다。더욱 국민은 舊世紀의 獨逸觀念論이나 낭만주의의 그리고 자연주의를 벗어나려 했으며, 사상계에서도 新칸트주의의 기운이 나타내다。야스퍼스는 전쟁을 겪고난 독일국민에게 사상을 심어주려 하였다。그는 이와같은 관실가운데서 1931年의 침묵을 깨고 「精神的狀況」이 출판되었다。이 小著는 그의 실존철학의 서곡이었다。야스퍼스는 20세기의 현대라는 환자를 그의 臨床病理診斷에 의하여 그것을 들여냈다。그는 또한 어려한 진단만으로 만족되지 않아 그 처방으로써 그는 다시 그의大著 全3卷인「철학」(Philosophie)를 1932年에 내놓았다。

「철학」의 내용은「우리는 변화하는 狀況에서 세계의 모든 사물에 관하여 과학적지식을 통하여 행동할수있는 방향을 가져야 한다。」「우리의 現존재는 객관적으로 만족할수 없음으로 實存解明>으로써<自我存在>의 눈을 떠야 한다。」「우리의 의식일반은 점이로 이어나가기 때문에 자아존재를 돌아다보지 않는한 인간이지닌<한계상황>을 깨닫지 못한다。「限界狀況」은 우리의 존재구조인 죽음, 고뇌, 투쟁, 책임等이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대할수 있어도 이 상황만은 피할 수가 없다」「우리는 존재를 탐구하는<途上에>이<限界>를 만든 초월자의 암호해독(Chffrelesen)을 한다。이 순간은 유한한 것의 挫折(Burch)이며 좌절의 자각은 자아존재의 발견이다。

자아의 발견은 바로 병든 20세기란 현대인에게 치료의 효과이며 그의 실존철학의<根源>이다。또한 이 저서가 지닌 치료적효과로는 戰後의 兩斷된 독일국가에 대한 독일국민의 정신적 자세에서도 찾아볼수있다。

그의 실존철학은 20세기의 전세계인의 魂의 再建을위하여 공한한 것이다。특히 이 실존철학처럼 한국이나 문학 종교등에 그 영향이 미친바 크다。

2차대전당시에 그는 나치의 자유사상가 탄압으로 著作발표의 금지는 물론 부인이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강요당했으며,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1942년 「바젤」에 초빙된 것이다。그는 이런 가운데 드디어 1945년8월15일「나치」의 정권이 패망하는 것을 볼수있었다。이날 야스퍼스는 학생들에게 감동적인 강연을 하였다。

「12年間에 걸친「나찌」하의 간섭은 대학의 황폐를 가져왔다。허나 독일은 파멸할수 없는 것임으로 교육이 있을뿐이다。삶은 우리자신의 결단과 관계한다。우리는 학문의 자유와 유럽정신의 회복을 서둘러야한다」고 하며 독일학생들에게 유럽의 두세계로 갈라놓은 것은 아니다。다시말하면 두개의이데오로기의 대립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分極을 말한것이다。

「이 分極의 극복은 마르크스 主義者인 루카이치가 말하는 社會組織의 理念전체로 극복될수 있는 것도, 그렇다고 觀察의 인간이 나타나서 되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인간전체의 자유의 길>을 포착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착해진다던가。

이 分極의 극복은 이 없다면서 자기철학을 한테는 東大生들의 폐활하고 속칙한태도 아낌없이 자랑하고 싶다고!。

취미를 묻자 차분한 성격을 원한다 答選을 좋아하며, 지금도 열심히 학원에 나가고 있다고。作品의 수준은 아직 수준밖이라고 조금은 겸손해한다。

사과라면 얼마든지 먹을수있다는 崔양은 서울태생。올여머니가 현재 청덕국민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인 학자집안의 차녀。1남4녀의 가족이 항시 오붓롯이 필정도로 어려울을 느껴보지 못했다면서 『이영광을 어머님에게 우선 전하겠다』며 자리를 일어서는 호녀다운 면모도 넘쳐。

▲1950년生 ▲69년 경기여 고졸。

<경상대 경영학과수>

話題의 인물

首席卒業·崔文卿양

『전교수석졸업은 뜻밖이다』라고 말하는 崔양은 지금기분은 오히려 담담할 뿐이라고。

수석졸업의 영광을 처음 친구를 통해 알았다면서 도리어 짐을 지운것같다고 겸손해 한다。

대학 졸업자답지않게 아직도 소녀티가 가시지 않은 崔양은 4년 동안 대학생활을 통해서 생활해온 경영과의 총일점으로 그것도 4년을 계속 우등해온 재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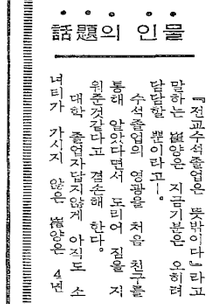
4년간의 총합점이 1632점에 평균 점수는 92.2。「저의 수석은 남학생들이 취직공부에 더 힘쓴 결과의 漁夫之利」라고 말하면서, 경상계통의 학문연구가 순수학문적인 방향을 떠나 취업우수의 인상이 여실한데 약간 불만스러운 눈치다。

경기여고를 졸업, 「부천」에 재직(故 姜敏源경상대교수) 한것이 인연이 되어 진학하게 되었다」면서 동양부에도 학점을 계속하기위해 서울대경영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고。대학원을 졸업하면 「母校의 강단에서 강의를 맡고싶다」고 포부를 역시 학문에 뜻을 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오랫동안 생활하고 보아온 東大 男學生像을 한마디로 「합격점」이라고 웃으며 말한다。그러나 여학생에 대해 좀더 친절했으면 더 바람이 없다면서 자기친구를 한테는 東大生들의 폐활하고 속칙한태도 아낌없이 자랑하고 싶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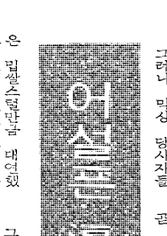
취미로는 독서와 차를 원하는 崔양은 서울태생으로 열심히 학원에 나가고 있다고。作品의 수준은 아직 수준밖이라고 조금은 겸손해한다。

4年을 우등장학생으로



退任記者席

李星輪



한때 헬만·헤세의<싯달타>를 읽고 무척 감동하던 적이있었다。

젊은 求道者<시달타>는 無我를 체득하기위한 온갖 瞑想과 苦行을 다行하지만, 번번히 다시<나>로 되돌아 가버리고 마는 流轉의 괴로움을 맛본다。

그는<고오타마>의 說法에의해서도 안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자신의 遍歷의 길을 다시 나고 만다。

× ×

꼭 3년3개월이라는 세월, 그러니까 대학시절의 거의 다를 나는 나의現住所를 「東大신문사」에 두고 지냈다。

한편 싹스러운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시달타>의 끈질긴 解脫에의 집념과도 같은 것이었다。

내자신을 포함한 大衆人의 자유와 정의와 진리를 갈망 말하고 실천하던 질념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원통해 하는 것은 아무데도 없었고, 그래서 나는 결국 買文窟로 전락해버린 내 자신에 항상 우울해 했다。실로 없었다。

특히 잊혀지지 않는 사실들이 있다。대학신문 記者들의 言論自由를 내건 기회있을때 마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들에서도 민망하리만큼 가장 오랜동안 계속해 왔다는 것을 새삼 부끄럽게 느낀다。

항상 스케일 크던 「곤로」<가 도중하차를 했음에도, 다른 대학기자들로부터 「鬪士」라는 속칭(?)를 받을 때도 즐겁고 그랬었지만。

그 말이 착해진다던가。비로소 나는 떠날때가 돼서야 그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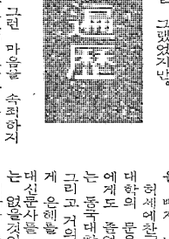
그동안 부얼밑고 그랬던 나에게도 돌연장을 오른내린 나에게도 동국대학교의 아량을 그리고 거의 4년동안 내게 은혜를 베풀어준 등 대신문사를 결코 잊을 수는 없을것이다。

떠나는 사람이 굳이 감정에 무슨 수식을 하랴。

다만, 意志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지도 못했고, 그런 감정을 발산할 막 걸림 집단마저 막혀 『울릇마시는 현진장 불러나라!』 친구들의 전부를 빌고싶다。

<東大新聞編輯長>

연설은 遍歷



은 밥쌀스럽만큼 대연했고, 외히려 다음색깔의 흑르스 主義者인 루카이치가 말하는 社會組織의 理念전체로 극복될수 있는 것도, 그렇다고 觀察의 인간이 나타나서 되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인간전체의 자유의 길>을 포착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착해진다던가。

이 分極의 극복은 마르크스 主義者인 루카이치가 말하는 社會組織의 理念전체로 극복될수 있는 것도, 그렇다고 觀察의 인간이 나타나서 되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인간전체의 자유의 길>을 포착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착해진다던가。

이 分極의 극복은 이 없다면서 자기철학을 한테는 東大生들의 폐활하고 속칙한태도 아낌없이 자랑하고 싶다고!。

취미를 묻자 차분한 성격을 원한다 答選을 좋아하며, 지금도 열심히 학원에 나가고 있다고。作品의 수준은 아직 수준밖이라고 조금은 겸손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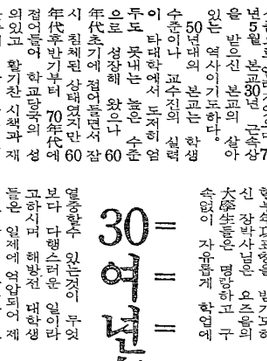
사과라면 얼마든지 먹을수있다는 崔양은 서울태생。올여머니가 현재 청덕국민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인 학자집안의 차녀。1남4녀의 가족이 항시 오붓롯이 필정도로 어려울을 느껴보지 못했다면서 『이영광을 어머님에게 우선 전하겠다』며 자리를 일어서는 호녀다운 면모도 넘쳐。

▲1950년生 ▲69년 경기여 고졸。

<경상대 경영학과수>

世界人의 평화, 自由 강조

새로운 精神이 創造돼야



지금 「많이 알지도 못하고 지금도 잘 수행해 나가지 못하는데 큰 명예를 얻게되어 더욱 어깨가 무겁다」고 겸손해 하시는 張박사님。

이번출연식에서 박사위원을 받으셨다。명예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간에 떠맡있고 성공으로 알려져있으며 70년 5월에 본교30년 근속상을 받으신 본교의 살아있는 역사이기도하다。

50년대의 본교는 학생수준이나 교수진의 실력이 타대학에서 도저히 엄두도 못내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해 왔으나 60年代초기에 접어들면서 잠시 침체된 상태였지만 60년대 후반기부터 70年代에 접어들어 학교당국의 성의있고 활기찬시책과 재단측의 적극적인 지원, 열중할수 있는것이 두엇보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하시며 해방전 대한생활에 역압되어 제대로 학업에 몰두하지도 못하고 보내는 선배들의 격문과 프래카드가 비교적 마뜻했던 전기대학 입시때에 대열을 이루었다。그러나 前期入學시험에 비해 기온이 영하 8, 9도를 오르내리며 수험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퇴계로 입구에서부터 東大學院街에 늘어선 학생들은 이날 오전 9시 서울出生, 日本早稻田大學불교학과卒, 해화전문학교卒, 東大교수, 東大서무처장, 淑大교수, 東大교양학부장, 문리대학장, 불교대학장, 국민훈장 동백장, 71년 교육부 표창。

▲著書 ▲佛敎學개론外 多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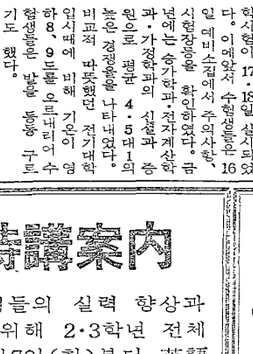
▲論文 ▲華嚴宗의 成立과 발전에 대한 考察, 淨土思想의연구外 多數。

<在>

大學院·行政大學院·碩士學位 受領者 명단

學科	論文題目	提出者	論文
佛敎學科	本生經에 대한 硏究	鄭尙順	
哲學科	張橫渠에 있어서의 氣와 人性에 관한 一考察	宋在大	
〃	Heidegger에 있어서의 形而上學의 問題	李相鉉	
國語國文科	動動歌硏究—民俗學的 考察을 中心으로—	李洙鉉	
英語英文科	A study on Huck's moral Growth andthe Structure	金興植	
〃	Social Influences on Victorian Literature and CHARLOTT BRONTE	李福子	
物理學科	超音波에 依한 Polymelhylmethacrylate의 creep說象에 關한 物性硏究	申榮勇	
法學科	株式會社法上의 訴에관한 硏究	鄭昌文	
〃	株式會社 監査制度의 比敎法學的 硏究	金丙文	
〃	Calvinism이 法에 미친영향—Max Weber小考—	柳烈敏	
政治外交科	韓國安全保障의 非軍事的인 側面에 관한 考察	李武明	
〃	中共政權의 成立過程에 관한 考察	趙在浩	
經濟科	李朝末의 手工業에 관한硏究—을릉도 格布手工業을 中心으로—	金信雄	
政治外交科	政治社會化理論에 관한—考察	金勝吉	
經營學科	年次經營計劃에 관한硏究—算式에 依한 設定方法을 中心으로—	具滋傑	
印度哲學科	華嚴經에 나타난 보살思想硏究	卓萬植	
〃	우리나라 公路運輸業의 育成方向	金光鎭	
〃	都市地域의 地價形成槪向과 對策	辛建善	
〃	韓國 國會議員의 社會的 背景에 關한 硏究	安崗燦	
〃	韓國 立法過程에 있어서 communication機能에 關한 硏究	宋錫根	
〃	宗敎團體의 財務行政에 관한 比較硏究	宋鎬洙	
〃	原資材의 効率的 事後管理에 關한 硏究	金龍煥	
〃	國防豫算運用에 있어서 PPBS의 適用에 關한 硏究	吳允奎	
〃	職位分類制度에 關한 硏究	吳亨淳	
〃	勤務成績評定에 關한 硏究	高世煥	
〃	大學生 軍事敎育에 關한 改善硏究(一般大學生에 對한軍事敎育을 中心으로)	姜禹根	
〃	韓國鐵道의 經營改善을 위한 硏究	延榮錫	
〃	鐵道公務員의 人事管理改善에 關한 硏究(現業從事員의 資格試驗 制度를 中心으로)	鄭鳳秀	
〃	技術人力開發을 위한 軍活用策	金相東	
〃	通信事業의 經營合理化에 關한 硏究	朴宣升	
〃	遞信部의 自生集團에 關한 硏究	金思南	
〃	經濟發展과 人力開發에 關한考察	金東日	
〃	現韓國金融機構의 合理的 改編方案(市中銀行의 民營化를 中心으로)	高昭錫	
〃	政府의 農業政策과 農村近代化에 關한 硏究	黃慶石	
〃	우리나라의 工業開發에 關한硏究(特히 그의 行政的인 役割을 中心으로)	金建成	
〃	韓國의 生産性向上 運動에 關한 硏究	柳明復	
〃	青少年犯罪預防에 關한 硏究	金永喬	
〃	우리나라의 觀光客誘致에 관한硏究(호텔기업을 中心으로)	金喬萬	
〃	陸軍의 企劃制度가 韓國行政發展에 미친 影響	裴棕泌	

선배들의 격려문 갖가지… 聖像앞에 기원하는 父母도



입학시험 落穗

○…72년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17·18일 실시되었다。이에앞서 수험생들은 16일 예비소집에서 주의사항, 시험장등을 확인했다。금년에는 숭가학과 전자계산학과·가정학과의 신설과 증원으로 평균 4·5대1의 높은 경쟁율을 나타내었다。비교적 마뜻했던 전기대학 입시때에 비해 기온이 영하 8, 9도를 오르내리며 수험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선배들의 격려문 갖가지 수험생들은 눈물겨운 선배들의 격려문과 프래카드가 가장 눈에 띄었다。

○…시험장 주변에서 대열을 이루었던 선배들의 격려문과 프래카드가 비교적 마뜻했던 전기대학 입시때에 대열을 이루었던 선배들의 격려문과 프래카드는 학력을 중시하는 선배들의 격려문과 프래카드는 눈물겨운 것이었다。

○…「어머니! 불초소생 떨어졌어요!」로 시작하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도 많이 있었다。

○…「이제 방학도 거의 끝나고 있다。그러나 방학과 나는 상관 없이 異邦지대인 경상대 특강은 출석休로 신청되고 있다。

無休로 신청되고 있다。

I.학장은 방학중 특강마무리와 신학기 특강구상 열중으로 자신의 박사학위 수여도 몰랐다는 소식인데 그여럽고 명예로운 박사학위 소식조차도 모르며 오직 특강에만 열중하시는 스승도 있는데 특강을 게을리 하는 학생들의 심사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는데。

○…72년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금하게 여기는데。

本紙로 문의해온 電話만도 상당한데 不況期에 등록금을 15억%라는 말에 열의없는 학생이 많아 한탄하는 이도 있다는데。

○…학생회관이 完工은 자재한생의 관심은 역시 등록금액에 쏠리고 있다。

○…방학이 거의 끝나가 수여도 몰랐다는 소식인데 그여럽고 명예로운 박사학위 소식조차도 모르며 오직 특강에만 열중하시는 스승도 있는데 특강을 게을리 하는 학생들의 심사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는데。

○…學生 최고의 해 자체이 「인간은 자유이며, 그 자유는 진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그에게 있어서는 자유의 개념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받아들여졌다。

1946년 「國際會合」에 참가하였을때 그는 거기서 「유럽 정신은 끝막힘 할것인가?」하는 주제로 左翼평론가 「루카아치」와의 논쟁은 세계적으로 센세이션했다。

야스퍼스는 그 논쟁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인간고뇌로의 운동에서 서로 공동적입장에서 포착하는 것 뿐이다。이것을 실천키위해서 전적으로 兩者 두개의 세계)가 차단된 방법을 취해서는 안된다。우리는 戰後20세기 역사적 두세계의 조류의 사상적 대립으로「分極性」가운데 있을뿐이지 發展論의 논쟁때문에 한세계가 다른 세계를 짓밟는 것은 없다。

「이 세계는 그 하였으며 인간사상에서도 특히 공자의 근본사상인 <天命>, <仁>의 문제에 관심을 모았다。

그는 「서양은 한 쪽만의 <세계>만 말은 어느 철학자보다도 많이 강조함은 바로 동서양을 포함한 세계인의 평화, 세계인의 자유를 성취하는 뜻에서 인것이다。

그는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그로써의 동양의 이해는 동서양의 가교를 의미한다。1961년 퇴직후에도 뇌의장으로 著書活動에 몰두했고, 1962<啓示에 직면한 철학적 믿음>이란 저서에서 보인 바는 그의 철학은 이미<실존적 종교철학>에로 옮아갔다。

1969년2월26일 그러니까 탄생한날 보다도 3日을 더 지상에 머무르다 잠든듯한 혼수속에서 서거했다。결국 그는 20세기란 현대인에게 실존사상을 가르쳐 인간이 스스로 內面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자아에 눈을 뜨게 했다。「야스퍼스」의 실존철학은 인간의<자각>을 중요과제로 삼는 불교사상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는 그의 위대한 정신적 행적을 통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한번 뒤돌아보고 나아가서는 21세기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모랄, 새로운 정신,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기를 잠잠하는 바다。

李善淑

<哲學科博士學位課程>

30여년在職의 산歷史

명예哲博 張元圭교수

교수 학생간의 혼연일체된 학습분위기속에서 2·3년후면 80年代의 주춧돌을 놓혀할 他大學의 주춧돌을 놓혀할 국내 私學의 천단을 견게 될 것이라고 밝은표정을 지으신다。

지난해10월 「제19회교육공로자표창식」에서 대한민국 장박사님은 명예박사학위 신청을 받기도하셨다。가정학과의 신설과 증원은 70년 4月에 명예박사학위 신청을 결의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나 요즈음에 와서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1·4후퇴때 두번 손실한 것이 5·6백권을 헤아린다고 하신다。

▲張元圭교수약력 1912年 2月3日字로 문교부 제72회 졸업 ▲서울出生 ▲東大學部교학과卒, 해화전문학교卒, 東大교수, 東大서무처장, 淑大교수, 東大교양학부장, 문리대학장, 불교대학장, 국민훈장 동백장, 71년 교육부 표창。

經商大 特講案內

경상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앞으로의 취업대책을 위해 2·3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7일(화)부터 英語 特講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빠짐없이 全員受講 바람。

1, 수강대상:
경상대 2·3학년 학생 전원

2, 수강신청:
3월 6일 까지
(학장실에서 소정 신청서 배부)

3, 담당강사:
英語A 尹昌鎬 先生
英語B 宋哲元 先生

4, 특강시간표:

月	火	水	木	金	수업시간
英語A	英語A	英語A	英語A	英語A	4時~5時30分
개	강	후	배	정	

※本특강은 3월7일부터 11월 末日까지 기초영어, 12월1일 이후는 별도 계획에 의하여 취업 특강을 실시함.

1972년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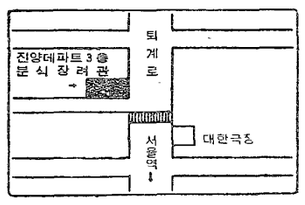
경상대학장

건강의 열쇠는 분식으로…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가벼운 식사를!

현대 감각을 가미한
궁전식 식당시설,
감미로운 음악과 아늑한
분위기 ——
다채로운 미각의 분식을
맛 보세요!

* 가족 등반과
다정한 벗끼리의 경식사에….



—— 대한제분주식회사 ——

분식장려관

대한극장앞 진양데파트3층 TEL ㉖ 2171 (교환) 305

JES의 日本語

◎초급, 중급, 고급, 作文
다이제스트 會話
◎유학고시 준비반(새로운 교육법으로 원장직강)
◎원서해득

개강 3월2일(목)
시간 오전 7시30분~오후8시30분

JES日本語學院
종로1가(법문사옆) 전화 ㉒5822

등대생 특별 우대함

관인 서울타자학원

★특 전

○일어, 영어, 미용, 지압별 等等의 무료강의
○가장 권위있는 교사의 철저한 개별지도방법 실시
○교통이 편리하며 수시로 입학이 가능함
○취직반, 비서반, 일반직장을 두어 취업을 적극알선하여 줌

시민회관옆 전화73—3896

원장(동국대학교등문) 박 영 준

<66>

誘惑

金惠純

한 발짝
왜 작이 깨나
한 오라기 꿈도 없이
하필 발등에 눈 떠지나.

어둠 속에서
누가 부르네.
그늘이 가려도
유난히 아름다운 달님
이속하도록 별판을 돌아다니다가
양상한 창을 안으로
안으로 體驗을 불러 모았네
저승의 神秘 搬出하네.

별 하나 먼 因緣의
여울목에서 휘어휘익 휘파람
불고 언덕마다 구름이 宮殿을 이루는
天上의 花園
이승의 꿈같은 것이
찰찰 넘어 발낮으로
새들은 꿈을 접어먹고 산다지
날개를 접고
野山에 억새훌속에 숨어
목숨 다하는 소리 다는 소리
붉은 꽃들이 자욱히

「니힐 엑스 니힐로」
「니힐 엑스 니힐로」

바람 속에서 부른다지.

〈佛敎大學 哲學科〉

報告記

冬季수련대회를 마치고…

「리더쉽 웍숍」은 말 그대로 지도자적 자질양성을 위한 일종의 「트레이닝」이다. 주입식 교육위주가 아니라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수련활동을 의미하는 보다 적극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교에서는 지난 70년부터 學生指導硏究所에서 이용하여 「리더쉽 웍숍」을 개최해왔다.

그 특색은 첫째 상호간의 접단생활과 대생활을 통하여 보다 깊은 이해와 협동심을 기르게 하고 둘째 寺刹생활을 통하여 신앙심을 돈독하게 하고, 셋째 화랑정신을 현대에 살려 민족의 번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자는 것이다. 또한 학생, 교수, 교직원간의 단절된 장벽을 없애고 대화의場을 넓힌는것에있다. 여기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바르게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특수한 民族的現實에 기초를둔 슬기로운한생생활이 되게하기위한것이 출발하여 어둠이 내려덮힐 때 도착했다. 이번 수련회는 온자한구 年古刹로 우리 一行을 압도해왔다. 넓은강변에 40명이 旅裝을 풀고 나름대로정돈했다. 에소집때의 추의사항대로 모두들 질서있게 행동하였다.

부처님의 頂骨舍利를모신 佛寶寺利에에서의 첫밥은 寺內 규율엄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蔡煙은 물론 강의실에서 흡연은 금지되면 그런 떠들썩함은 전혀없었다.

모두가 고요한 山寺에 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경지에 적응하기 위한 간험 같았다.

저녁 7시에 기상, 차 거운 물을로 세수를하고 고 體佛에 참석. 그리고 다시 장학대열에 서야하고 규칙적인 점호가 있었다.

4박 5일간 거들린 이 점호에 낯익자가 거의없었던 것은 퍽이나 다행스럽다고나 할까.

어둠이 걷히지 양한게 구보. 그러나곧 긴 민가들에서 發路연습까지 해야했던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웃음거도 했다.

고가. 웅장가의 힘찬제창, 규가로 목청을 돋우며 등상방을 합창하며 발을 구른다. 대개가 처음이라 미숙했다.

배가 헐게 고파지는 아침 구보때문에 수많은 불평자에 가까운 듯 실다.

후자의 대표는 「니체주가 말한 自己喪失의 병폐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병자들이다.

내가 나를 알고도없이 내가 나를 없애는것, 내가 나를 없애고도없이 구에 깨닫지 못하는그 것이다.

내가 나를 잃으면다 시찾을수 있지만, 그것 만은 깨닫지 못하면 고 사하고 알수 없기 때문에 고칠수가 없다.

옛화랑도들이 늘즐에당시의 風物과 盟誓를 새긴 碑石의 文字와 그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격을 자아내게 했다.

雨部泳·李戒昌교수의 現地에서의 강연으로 花郎史에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수가 있었다.

경건한 마음의 山寺를 떠난 밤구대 시냇가에서의 「캠프·화이어」는 가장인상에 남을 듯하다.

동국의 지도자 다나아가서는 국가장래의 지도자로서 지식정을 개발하는 수련대회는 다음 여름의 山寺를 약속하며 서서히 막을 내린다.

보다 효율적인 강의, 장소선정문제, 학생들간의 많은 토론시간이 아쉽게 느껴진다.

서울로 向하는 가벼운 발걸음, 빛나는 눈동자에는 東國의 영이 서려있음을 찾을수 있었다.

花郎史에 해 생도와

점호에 낯익자가 거의없었던 것은 퍽이나 다행스럽다고나 할까.

어둠이 걷히지 양한게 구보. 그러나곧 긴 민가들에서 發路연습까지 해야했던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웃음거도 했다.

고가. 웅장가의 힘찬제창, 규가로 목청을 돋우며 등상방을 합창하며 발을 구른다. 대개가 처음이라 미숙했다.

배가 헐게 고파지는 아침 구보때문에 수많은 불평자에 가까운 듯 실다.

후자의 대표는 「니체주가 말한 自己喪失의 병폐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병자들이다.

내가 나를 알고도없이 내가 나를 없애는것, 내가 나를 없애고도없이 구에 깨닫지 못하는그 것이다.

내가 나를 잃으면다 시찾을수 있지만, 그것 만은 깨닫지 못하면 고 사하고 알수 없기 때문에 고칠수가 없다.

▼「所謂 大學生」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본개의 말이다. 일리자면 제2캠퍼스群에서의 비위는 물째하고 失業者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大학사群을 受容하는 사회不條理 이해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여 「資任과信念이강한 생대표의 솔선수범」을강조하고 「연행일치가 되어야 指導者가 될수있다」고 하였다.

일반에겐 공개되지 않는 頂骨舍利塔과 釋迦袈裟를 관람할 수 있었던것은 東國人의 자부이다.

極樂庵에서의 경봉 큰스님의 說法은 듣는 이로 하여금 높은 경지로 몰입하게 했고, 마음속에 새로운 결의를 다지게 했다.

한편, 대원들은 본교가 발견한 新羅花郎碑의 道盤이었던 盤龜寺와 瑩石을 방문했다.

옛화랑도들이 늘즐에당시의 風物과 盟誓를 새긴 瑩石의 文字와 그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격을 자아내게 했다.

雨部泳·李戒昌교수의 現地에서의 강연으로 花郎史에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수가 있었다.

경건한 마음의 山寺를 떠난 밤구대 시냇가에서의 「캠프·화이어」는 가장인상에 남을 듯하다.

동국의 지도자 다나아가서는 국가장래의 지도자로서 지식정을 개발하는 수련대회는 다음 여름의 山寺를 약속하며 서서히 막을 내린다.

보다 효율적인 강의, 장소선정문제, 학생들간의 많은 토론시간이 아쉽게 느껴진다.

서울로 向하는 가벼운 발걸음, 빛나는 눈동자에는 東國의 영이 서려있음을 찾을수 있었다.

奉先寺 4晝夜

시간, 休息4시간, 修鍊14시간이 대단, 산보적이라고 할만큼 대학도 많고, 학생도 많고 경제불황으로 메우게 된다. 요컨대 하루24시간 생활을 一定한 課業과 規律에 의하여 엄하게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잠깐이 이러한 수련의 진정이 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수련의 상아탑이지만 學問과 眞理의 大學이란 말해야겠다.

「리더쉽 웍숍」은 지난 1월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양산 通度寺에서 50명이 참가했고 宗立聯 수련대회가 1월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양주군 奉先寺에서 各근트서 레닝코스를 밟았다.

이번에 불교종립학원연합회가 주최한 제4회 「리더쉽웍숍」과 불교종립학원연합회 가주최한서울경기지구 1차冬期수련대회 참가기를 싣는다. 「리더쉽·웍숍」은 지난 1월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양산 通度寺에서 50명이 참가했고 宗立聯 수련대회가 1월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奉先寺에서 各근트서 레닝코스를 밟았다.

지난 1월6일 나는 大會參加를 위하여 마련한 韓服을 입고 간단한 行裝을 차린뒤 출발하였다. 우리東大 참가인원은 課長 主任級으로 10명, 기타 宗立學校敎師들을 합하여 40여명이 되었다.

미끈한 街道를 유쾌하게 달리는 車內에서 창밖의 평화스러운 아침풍경을 바라보니 매우 기분이 좋았다.

푸른숲과 맑은물, 조용하고 아늑한 奉先寺를 그리며 이번 修練에서 무엇인가 소득이 있어야하겠다고 다짐해보며 나는 문득 30여년전 속리산법주사 講院時節을 더듬고 있었다. 곽두새벽부터 북소리 종소리 목탁소리에 선잠을 깨고나면 이불을걷어차고 지대방으로 들어가가가 일수지만 번번이 立繩스님의 죽비에 얻어맞았다. 觀佛은 꼭 參禮해야한다 빠지기라도하면 그이유가 철저히 규명되어야했다.

항상 이어야할 자리에 없을때는 祖室스님이 供養물에 반드시 문책을 삼았다. 寺院生活은 고독한것 그러나 이모든 엄격한 생활은 성실한 인간을 성취시키려는 스님들의 고마운 정성이 아닌가한다.

이번의 修鍊이 권태와 安逸한 생활에서 극도로 해이된 心身을 채찍질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님들의 안내로 處所를 옮겨 점심供養을 마친후 큰법당에서 敎理講座 스님을모시고 개회식에 이어 한때 시작되는 午後의 日課에 들어갔다.

奉先寺는 世祖大王의 명복을 빌기위하여 건립한 명사찰이었으나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사변등 여러차례의 兵火에 소실되었으며 현재의 큰법당·大房·寢舍등은 6·25戰失後의 재건이라 한다. 境內에는 國寶인 大鐘이있다. 큰법당에는 석가상 한분만 모시고 좌우벽면에는 華嚴經文을 모셨다. 천판도 「큰법당」이라 쓰고 桂瑞도 한글로 번역한 佛功德碑를 세서 달았는데 매우 잘절한 인상을 준다.

日課表를 보면 睡眠6시간, 休息4시간, 修鍊14시간이 대단, 산보적이라고 할만큼 대학도 많고, 학생도 많고 경제불황으로 메우게 된다. 요컨대 하루24시간 생활을 一定한 課業과 規律에 의하여 엄하게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잠깐이 이러한 수련의 진정이 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수련의 상아탑이지만 學問과 眞理의 大學이란 말해야겠다.

□ 학생지도 연구소가 주최한 제4회 「리더쉽웍숍」과 불교종립학원연합회 가주최한서울경기지구 1차冬期수련대회 참가기를 싣는다. 「리더쉽·웍숍」은 지난 1월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양산 通度寺에서 50명이 참가했고 宗立聯 수련대회가 1월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양주군 奉先寺에서 各근트서 레닝코스를 밟았다.

□ □ □ □